마지막 업데이트: 2023년 5월 1일

3.14 공론화

지인들에게 지속적으로 후원창을 키며 **<u>금전적인 요구</u>**를 하고, 반년넘게 돈을 갚지 않았으며, 트친과의 오프에서 **눈치없는 민폐짓**과, **<u>성희롱적인 발언</u>**을 **지속적**으로 하였던 <u>3.14를 공론화합니다.</u>

먼저, 금전적인 부분부터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14가 처음으로 트위터와 디코에서 후원창을 열었던건 2022년 11월쯤이였습니다. 그때 트위터와 디스코드에서 **다음달 월급 나올때까지만** 후원창을 열어두겠다 하며, 월급을 받게되면 **후원자분들께 꼭 갚겠다고** 약속하는 글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후원창을 닫으면서 **그동안 계속 월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총합 **몇십만원**정도의 후원을 해준 **몇십명의** 사람들에게 **<u>반년이 넘도록</u>** 돈을 갚지 않았다는 제보가 들어왔으며, 그 반년동안 3.14는 카메라 렌즈를 구매하고 여기저기 놀러다니며 자신의 트위터에 자랑하듯이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u>갚을 돈은 없고 비싼 카메라 렌즈사며 놀러다닐 돈은 있었나보네요</u>

후원창을 열었을 당시에, 행사장 티켓을 사전구매 하기 위해 **꼭 갚겠다는 말을 하며,** **<u>지인 A</u>**에게 **<u>135000</u>원짜리 행사장 티켓 (퍼리조아 티켓)**을 받고, 또 A에게 추가로 **2만원**을 더 받았음도 불구하고, 이후 **지금까지 <u>6개월동안</u>** A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 6개월간 3.14와 A는 **촬영회 행사 등에서 서로 마주치기도 하고** 디코DM도 간간히 하며 연락을 이어나갔으나 A가 3.14를 마주쳤을 당시, **A가 내가 티켓도 사주고~ 엄청 잘해준거 알지?** 라는 말을 덧붙이며 돈을 갚으라는 눈치를 지속해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3.14는 **<u>A에게 15만원이 넘는 큰 돈을 받았다는걸 알고도 얼버무리며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u>**

A 이외에도, 작년 11월 후원창을 열었을 당시, 1~2만원 전후로 후원을 해준 다른분들 몇십명도 3.14에게 **아직까지 돈을 받지 못하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RT추첨 이벤트로 치킨 기프티콘을 뿌린다는 글을 올렸으면서, 자기 돈없다고 또 다시 후원창을 열며 지인들에게 금전적 요구를 하였습니다.
<u>RT이벤트로 치킨 기프티콘 뿌릴 돈은 있으면서 자기 먹고살돈은 없었나보네요</u>

이렇게 3.14는 맨날 돈없다고 후원창 열며 지인들한테 수금받으면서, 돈도 안갚고 정작 자기는 비싼 KTX와 공항리무진 등을 타고다니며, 돈을 펑펑쓰고 다녔습니다.

<u>저렇게 돈 막쓰면서 돈없다며 후원창여는게 제일 문제..</u>

이제 성희롱적인 발언을 했던 부분을 언급하겠습니다.

먼저, 피해자인 **<u>지인 B</u>**와 **3.14**는 트친관계였으며, 2022년 7월에 처음 오프를 했습니다.
참고로 **<u>지인 B</u>는** 아직 <u>미성년자</u>이며, **3.14는** <u>성인</u>입니다.

3.14는 B에게 첫 오프부터 **"자신은 스킨쉽을 좋아한다"** 라며 스킨쉽을 요청했고, 첫 오프였지만, 지인 B는 **간단한 스킨쉽정도야 뭐 괜찮지**. 하면서 받아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후 9월 추석 연휴쯤에 다시 만났을때부터 일어났습니다.

3.14와 지인 B는 늦은 밤, 오프를 끝내고 집에 가기 위해, 지하철 역에서 같이 벤치에 앉아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둘이 대화하는중, 의도치 않게 3.14의 성기가 지인 B에게 닿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3.14는 지인 B에게 **<u>자신의 성기를 발로 비벼달라는듯이 말을 하며</u>** 성적이고 불쾌감을 주는 무리한 요구를 피해자에게 요청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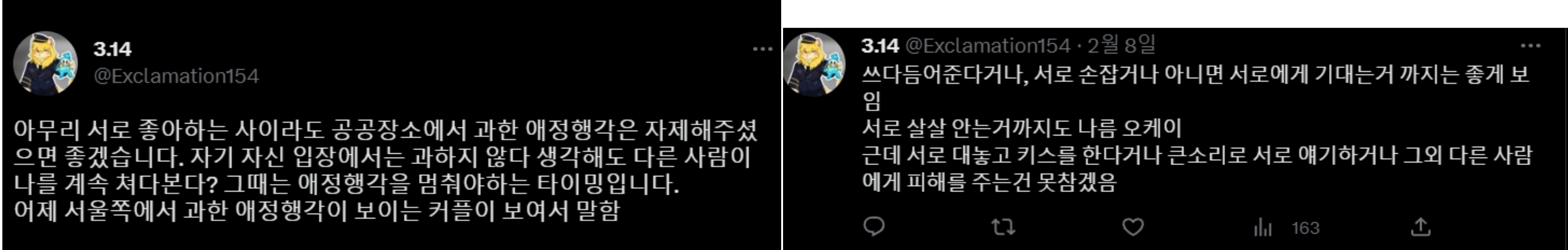
<u>"심지어 피해자인 지인 B는 당시에도 애인이 있었고, 연애중이던 상태였습니다"</u>

지인 B도 이건 좀 아니다 싶어, 거절하는 투로 불쾌하다며, 싫다는 눈치를 보냈지만 3.14는 무시하고 계속 자신의 성기를 발로 비벼달라는듯이 말을 하며, 자신의 성적인 요구를 들어주도록 분위기를 조성해갔습니다.

이후에도, 몇달간 지인 B와 오프에서 **만날때마다 지속적으로** 예전에 자신의 성기를 발로 비벼줬던것을 다시 해달라는 식으로 말하며, 피해자인 B에게 재요청을 했지만, 지인 B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3.14는 연애중이며, 애인이 있는 사람한테 지속적으로 몇달동안 공공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성적인 요구를 해놓고, 아래 글/사진과 같이, 상당히 모순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올해 2월에 지인 B와 그의 애인, 3.14 이렇게 3명이서 오프를 하게됐을 때 일입니다.
이때 지인 B와 애인이 커플관계다 보니, 지하철역에서 가벼운 포옹과 코를 맞대는 정도의 스킨쉽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3.14는 공공장소에서 뭐하는 짓이냐며 눈치와 꼽을 줬고, 오프가 끝나고 얼마 안가 트위터에 아래와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자기는 공공장소에서 애인있는 사람한테 자기 성기를 비벼달라는듯이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면서, 커플들끼리 스킨쉽하는건 아니꼬웠던지.. 내로남불을 시전하며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u>자기는 지하철역에서 애인있는 사람한테 저런짓 다해놓고, 저게 본인이 할말인지 모르겠네요.</u>

그리고 이걸 왜 본인이 결정하시는지는 이해가 전혀 안가지만, 피해자만 몇십명이나 되는 금전관련 문제와
성인이나 되신분께서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알아서 변명해보시길 바랍니다.
<u>"그때 너도 동의했었잖아" 등의 가해자 전용멘트 말구요.</u>

← 트윗

3.14
@Exclamation154

일단 전 평상시처럼 트윗 올리는데 글 올라오면 알티좀 해주셔요 보고 반박할
지 사과할지 결정할테니까여

대한민국 금천구에서 오후 12:19 · 2023년 4월 30일 · 905 조회수